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편집인 공영일
주간 이석우
편집 상임 김중석
인쇄인 김중배

서울캠퍼스(우: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5849
FAX(962) 7718
수원캠퍼스(우: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1)5701(교환: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 (0331)281-6378

제1039호 〈주간〉 1994년 3월 14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등록번호 나-12) (1955년 5월 12일 창간) 【1】

특별시험 응시율 저조

응시생 8백 37명중 4.78% 합격

올해 처음 시행된 교양과목 특별시험 결과 총 응시생 8백 37명 중 약 4.78%만이 합격하였다.

학생들의 조기졸업 및 부전공, 복수전공 등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지난 5일 실시한 이 시험에 신입생 4천4백25명 중 약 18.8%인 8백37명 (서울 3백39명, 수원 4백98명)이 지원해 이중, 40명(서울 35명, 수원5명)이 합격.

약 4.78%의 합격율을 보였다.

국어, 한국사, 영어Ⅰ, 영어Ⅱ 등 4과목에 대해 실시한 이번 시험의 과목별 지원자 및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국어 : 2백30명(서울 1백5명, 수원 1백25명) 지원 16명(서울13명, 수원3명) 합격△한국사 : 2백37명(서울75명, 수원1백62명) 지원, 10명(서울9명, 수원1명)합격 △영어Ⅰ : 2백87명(서울1백18명, 수원 1백69명) 지원, 11명 (서울 10명, 수원 1명) 합격 △영어Ⅱ : 83명(서울 41명, 수원 42명) 지원, 4명(서울 3명, 수원 1명)이 합격하였으며 2과목 중복합격자는 류원연(정경대 경영·1)군과 서호성(한의예·1)군 등 2명이다.

또, 합격자를 단대별로 살펴보면 문리대 4명, 법대 5명, 정경대 7명, 사범대 1명, 의과대 6명, 한의대 10명, 약학대 2명, 외대 1명, 자연대 1명, 공대 2명으로 정경대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현편, 현재 교양과목 특별시험제가 정착되어 실시되고 있는 서울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2월중에 시험을 치르며 8과목 중 4과목을 중복지원할 수 있다.

지난 8일 발표된 서울대의 지원자 및 합격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입생중 약 80.1%가 응시해 2백32명이 합격하였고 2과목 이상 합격한 학생수는 31명이다.

또, 합격 후 수강신청정정시 우리학교는 이수구분을 '자유선택'으로만 할 수 있는 반면 서울대의 경우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어 있다.

교무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시험 전형에 관해 '우리학교가 이번 시험에서 지원자나 합격자등이 매우 저조한 것은 갑작스런 제도시행으로 인한 홍보부족과 제도 시행상의 착오 등이 그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하였으며 학교측은 내년의 특별시험시행을 위해 합격증교부와 동시에 공고하는 등 사전의 충분한 홍보와 시험난이도 조정, 시험의 서울, 수원 분리실시 등을 검토하여 제도보완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입생환영주간 행사개최

서울 '길찾는 그대에게' 수원 환영공연

신입생 환영 행사가 캠퍼스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종학생회는 '길을 찾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늘부터 18일까지 신입생 환영주간 행사를 가진다.

▲영화제 : 환영주간 동안 매일 오후4시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동아리 '빛과 자막'주최로 피아노, 블러드 심플, 텔마와 루이스, 그들도 우리처럼,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을 상영한다. ▲학술제 : 학술부 주관으로 월요일 열린 비판으로서의 사회과학 읽기, 화요일 글쓰기에 관해서 강연이 있다. ▲'아, 대한민국!' : '소외된 삶을 위하여'란 부제를 가지고 연대사업국에서 준비하여 17일 오후3시부터 노천극장에서 철거촌 주민, 해직 노동자, 전교조 선생님 등을 모시고 장작불 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동연 학내거리문화제 : 지난 주 얼리기로 되어 있었으나 날씨관계로 연기되었다. 각 동아리의 공연을 중심으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 ▲새내기 닷이 잔치 : 동연 행사가 끝난 뒤 학생식당에서 '서울하늘'의 공연과 함께 대화를 가지는 지리가 된다.

【수원】동아리연합회는 오는 14일부터 동아리 홍보와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한 공연 및 가두 모집을 학생회관에서 갖는다.

행사일정을 살펴보면 ▲14, 15일 : 동아리 가두모집 및 선전(학생회관 앞) ▲16,18일 : 제2차 동아리 소모임(각 동아리방) ▲17일 : 동아리 한마당(학생회관 앞)이다.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그 목적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문화공연-팔먹의 봉산탈춤 교실, 바나리의 민요경창 등-과 지난 오리엔테이션때 가졌던 제1차 동아리 소모임을 활성화시켜 학생들이 보다 동아리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꾸몄다.

한편 17일 동아리 한마당에서는 동연장 및 분과장 소개와 교육재정 확보, 수업개방 저지를 위한 신입생, 재학생 한마당도 같이 펼쳐진다.

김언종 교수 신방국장 선임

수원캠퍼스 신문방송국장에 김언종(외대 중문학)교수가 선임되었다.

김언종 교수는 대만의 국립대만사범대학에서 중문학 석사 및 중국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우리학교 국문과 71학번 동문으로 지난 83년 중문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한편 지난 1일 퇴임한 정관수 전임 신방국장은 86년이래로 수원캠퍼스 신문방송국장으로 재직해 오면서 92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대학의 소리방송국(VOU)의 CATV방영, 대학주보등 학내 언론사의 위상강화와 복지증진등을 확립시켰다.

서울, 연구박사 5명 선발

출신대학·전공 무관, 연구·강의기회부여

서울캠퍼스 연구처는 지난 2월26일 5명의 연구박사를 선발했다.

선발된 연구박사는 최근 3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일년에 8백40만원의 연구비와 초과 강의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연구박사제는 정식교수가 아닌 박사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수계약제와 다르며 출신대학·전공과목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아 연구비를 지원하고 강의를 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이 제도는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대학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해 오던 것으로 우리학교에서는 이미 2년전부터 시험적으로 운영해왔다.

선발된 연구박사들은 연구기간동안 수행할 연구계획서를 이미 제출했고 연구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6시간의 대학원 및 학부의 강의를 위촉할 수 있다.

선발된 연구박사는 다음과 같다.

①생년월일 ②출신학교 ③최종학력 ④전공 ⑤현직

▲오기영=1963.8.18 ②서울대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③서울대 자연대학원 물리학과 ④고체물리이론 ⑤서울대 자연종합연구소 조교 ▲임영미=①1959.9.14 ②경희대 외과대학 간호학과 ③아리조나대학교 간호학박사 ④노인간호학, 성인간호학 ⑤경희대, 단국대 강사 ▲박광덕=①1957.6.27 ②경희대 법과대학 행정학과 ③경희대학원 행정학 박사 ⑤경희대 강사 ▲주광곤=①1960.12.2 ②경희대 문리과대학 물리학과 ③경희대학원 물리학 박사 ⑤경희대 조교 ▲Tatsuya Veno=①1964.7.12 ②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물리학과 ③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박사 ④입자물리학 ⑤N.Sakai 교수

편입학 1백 16명 등록

전파공학과 15명으로 최다

지난 2월 16일 발표된 편입학 시험 합격자중 일반편입학 78명중 68명, 학사편입학 69명중 48명이 등록하였다.

과별 등록률은 다음과 같다.

◇일반편입학=▲지리학과 : 5명 ▲지리학과(야) : 13명 ▲생물학과(야) : 7명 ▲식품영양학과 : 1명 ▲간호학과 : 3명 ▲무용학과 : 2명 ▲러시아어학과(야) : 11명 ▲국제관계학과(야) : 12명 ▲전파공학과 : 15명

◇학사편입학=▲국문학과 : 5명 ▲영문학과 : 5명 ▲사학과 : 1명 ▲수학과 : 1명 ▲생물학과 : 2명 ▲법학과 : 5명 ▲행정학과 : 2명 ▲정치외교학과 : 1명 ▲신문방송학과 : 1명 ▲경제학과 : 1명 ▲경영학과 : 5명 ▲무역학과 : 1명 ▲회계학과 : 1명 ▲가정관리학과 : 1명 ▲식품영양학과 : 4명 ▲의상학과 : 4명 ▲의학과 : 4명 ▲한의학과 : 1명 ▲일문학과 : 1명 ▲국제관계학과 : 1명 ▲자연대 화학과 : 1명 ▲전파공학과 : 1명 ▲조경학과 : 1명

대학원 학술국 철학특강 개최

'헤겔사상과 현대철학 관련성'주제로

우리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학술국은 94년 봄학기 학술기획으로 '헤겔을 다시 읽는다'라는 제목의 철학특강을 개최한다.

이 특강은 3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세달에 걸쳐 13회로 구성되며 강연이 아닌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교재를 통한 깊이있는 철학이해의 계기를 마련한다.

앞으로 계속 추진될 근·현대 철학특강의 첫기획이 되는 이 강의는 현대철학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헤겔의 전반적인 사상과 현대철학과의 관련성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4시부터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하며 1회강좌에 5천원, 전 강좌는 5만원의 수강료를 받는다.

교재는 ▲정신현상학-임석진 역, 지식산업사 ▲대논리학-임석진 역, 일지사 ▲법철학-임석진 역, 지식산업사 ▲역사철학강연-김종호 역, 삼성사상 전집이다.

세부일정은 다음 표와같다.

Ⅰ. 정신현상학	양운덕(고려대 강사)
1. '정신현상학'의 구조	
2. '의식'의 변증법	
3. '자기의식'의 변증법	
4. '정신'의 변증법Ⅰ	
5. '정신'의 변증법Ⅱ	
Ⅱ. 대논리학	우기동(성균관대 강사)
1. '존재'의 변증법	
2. '반성'의 변증법	
3. 판단/추론	
4. 절대이념	
Ⅲ. 법철학및 역사철학강의	김창호(서울시립대 강사)
1. 법철학Ⅰ : 소유와 계약	
2. 법철학Ⅱ : 시민사회와 국가	
3. 역사철학Ⅰ : 역사파악의 방법	
4. 역사철학Ⅱ : 세계사에서의 이성	

학사경고 대상자 8백 55명

전체 인원중 1학년 50%

우리학교의 93년 2학기 성적경고대상자는 총8백55명으로 지난 학기 9백20명에 비해 65명이 감소하였다.

이를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이 4백25명(서울1백88명, 수원 2백37명) 2학년 1백52명(서울 54명, 수원 1백52명) 3학년 94명(서울31명, 수원 63명) 4학년 1백30명(서울47명, 수원 83명)으로 1학년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캠퍼스별로 비교해보면 수원캠퍼스가 서울캠퍼스의 약 2배가량이다.

한편 3회 연속경고로 제적된 학생수는 수원캠퍼스의 경우 외국어대학 1명, 자연과학대학 1명, 공과대학 2명으로 총 4명이며 지난학기 서울·수원학계인 16명(서울6명 수원1명)에 비해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나 서울캠퍼스는 1명의 제적자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이 서울에 비해 수원캠퍼스의 성적경고대상자가 현격히 많은 것은 학교에 대한 불성실함이라기보다는 학교에 대한 불만족이 더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 고

"모든 바람은 대학주보로 부터"

대학주보 43기 수습기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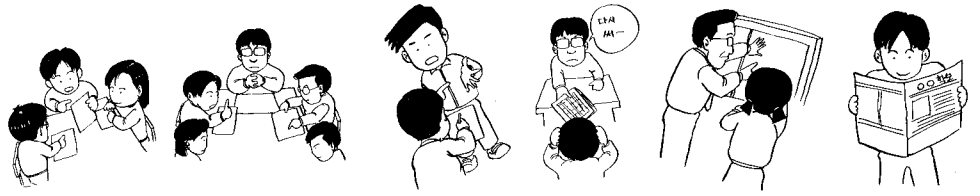
오는 15일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

진실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대학문화를 선도해가는 대학주보가 현실과 역사를 가르며 날카로운 필봉을 드높일 대학의 지성을 찾습니다.

▲모집인원:서울·수원캠퍼스 ○○명
▲모집부문:취재기자·컷(만화)기자·사진기자
▲선발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3월2일부터 15일까지
나. 전형일자:
①서울캠퍼스:3월15일(화) 오후6시 본사 편집실
②수원캠퍼스:3월16일(수) 오후5시 수원캠퍼스 편집실
다. 선발방법 : 면접
▲원서교부 및 접수처:서울캠퍼스 및 수원캠퍼스 편집실
▲제출서류:응시원서(당사 소정양식)

대학주보사

대학주보 43기 수습기자 모집



당신에게 용기가 없다면

'자유'와 '사랑'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위해서는
자신을 버리고 '우리'속에서
더 커진 자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서는
깨어지고 거듭나는 아픔 속에서
눈물을 참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구속을 싫어했던 사람들.
뜨거운 사랑을 소망했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자유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안된다는 것을,
용기없는 사람은
자유와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서울지역 동부지역

●건대신문사 ●광운대신문사 ●대학주보사
●산업대신문사 ●서울여대학보사 ●세종대학보사
●시립대신문사 ●외대학보사 ●한대신문사